

나훔의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훔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개역, 창세기 31:43~55]

오 늘은 특별히 반갑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멀리서 모처럼 오신 분들이 많아서 참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에 '나훔의 하나님'이란 설교를 들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나훔의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데가 없고, 그리 중요한 표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맞아 모처럼 오셨는데 특이한 제목을 기억함으로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흥미로운 고수들의 대결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나 고수들의 시합을 옆에서 지켜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이 무서워요. 고수 혹은 어떤 분야에 대가라면 존경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탁구가 무슨 운동이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88올림픽 때 외국의 어떤 탁구팀이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합을 한 게 아니고 공연을 했어요. 두 사람이 탁구공을 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도대체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공격하는 사람은 탁구대 위에 올라가서 내리칩니다. 공이 저 멀리 날아가면 수비하는 사람은 저쪽 뒷편에서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다 받아 올립니다.

공이 천정으로 봉 떠올랐다가 탁구대 위에 똑 떨어지면 탁구대 위에 올라 간 사람이 또 내리치듯이 칩니다. 그러면 또 저 구석에서 받아올려요. 코메디 비슷한데 장난이 아니에요.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코메디보다도 더 재미있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탁구의 대가쯤 되니까 저런 쇼도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대가나 전문가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참 흥미로운 법입니다.

잔머리의 대가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고수가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라반과 야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종목의 고수일까요? 라반과 야곱은 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고단수입니다. 어떤 종목에서요? 잔머리 굴리기에 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잔머리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붙어서 피티지도록 싸운 이야기가 앞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가겠다고 형님 발꿈치 잡고 태어났던 야곱이 평생 그렇게 삽니다. 결국은 형님을 보기 좋게 속이죠. 배고픈 형에게 "형, 이 팔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내가 형하자." "에라, 배고픈데 형이 밥먹여 주냐? 네가 형 해라." 그래서 명목상으로 형을 차지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눈먼 아버

지를 완전히 속여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니 할 수 없이 저 먼 외삼촌집으로 피난을 보내버렸습니다.

거기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로 20년을 지내게 되죠. 가장 결정적으로 싸운 것이 일 해 주고 보수를 정할 때 두 사람이 머리싸움을 엄청나게 합니다. “장인어른, 내게 매월 일정액을 줄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양 떼들 중에 아룁지고 점있는 것을 다 가려내고 가져가세요. 제가 흰 양떼만 치겠습니다. 흰 양떼만 쳤는데 여기에서 만약 얼룩이나 점 있는 게 나오면 그걸 제 샅으로 주세요.” 엄청나게 머리를 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겠지만 좌우간 흰 양떼만 쳤는데 여기에 점박이가 막 쏟아진 거예요. 라반이 보니까 안되겠거든요. “야, 올해는 방식을 좀 바꾸자. 점박이가 나오면 내꺼다. 하얀 놈이 나오면 너 해라.” 이래서 나중에 야곱이 말하는 것을 보면 열 번을 바꿨습니다. 야곱도 일정액을 받아서는 일이 안된다는 걸 다 계산하고 성과급을 노린 셈이죠. 6년만에 샅을 열 번이나 바꾸었으니 둘이서 잔머리를 얼마나 굴렸는지 알만하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님이 두려워서 강을 건너면서 가족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외물을 한꺼번에 왕창 가져다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것을 여러 등분 나누어서 요만큼 갔다 드리고 또 갔다 드리고 계속 몇 번 갔다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공부 하면서 물어 보니까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거액을 한꺼번에 주는 것과 이걸 몇 번 쪼개서 주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낫겠느냐? 야곱은 그런 궁리까지 다 합니다.

가족을 한꺼번에 안 데리고 가죠? 네 조각으로 나누어 맨 뒤편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그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럼 제일 앞에는? 원래 종이였다가 자기 아내가 된 탈 사랑하느 부인과 자식들은 앞에만 세우고 제일 뒤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세우고 갑니다. 만약에 형님이 와서 이쪽을 치면 나머지도 도망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궁리죠. 얼마나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리는지 모르는데 야곱의 생애를 찬찬히 보면 이걸 잔머리입니다. 쓸데없는 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렸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와 맞대결을 펼쳤던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반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누이동생이 시집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머느리감을 구하려고 왔던 장면을 보면 라반이란 사람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여동생이 물길러 갔는데 한나절이 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놈의... 나타나기만 해 봐라. 혼을 낼거다’ 이려고 있는데 늦게서야 나타나는데 보니까 세상에 평소에 없던 코고리에다 굵은 금팔찌를 끼고 나타나는 걸 보고 “웬 거냐?” “우물가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주더라” 그 말을 듣고 총알같이 뛰어갑니다. 가서,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온갖 아부를 다 합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짐승들 집 내리고 짚 먹이고 밭짓을 물 대령하고 온갖 아부를 다 떨었는데 그로 인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대접했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좌우간 돈 될 만하다 싶으면 얼마나 동작이 빠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런 라반을 만나서 속고 속이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기 결혼이지요. 라반에게 딸이 둘 있었는데 둘째 딸이 예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첫째 딸은 안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눈빛이 좀 희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빛이 희미했다는 건 정신도 좀 온전치 못했다는 뜻일 테고 어떻게 시집보낼 방법도 없는 딸이 있었던 말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둘째 딸을 좋아하거든요. 라반이 그걸 미끼로 삼아서 첫째 딸을 먼저 치우는 겁니다. “둘째 딸을 위해 7년간 봉사하면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7년간 잘 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을 잘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 보니 둘째 딸이 아니고 첫째 딸이란 말이지요.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외삼촌의 답변이 “우리 풍습에 만이를 놔두고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한마디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일 다 끝내고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치지가 치지인 만큼 그렇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마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둘째도 오늘 당장 줄게.” 그래서 부인을 한꺼번에 둘이나 얻습니다. 그래서 7년 봉사하고 만이는 속아서 얻었고 둘째를 얻어놓고 후불로 7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을 지냈습니다. 아마 이 일이 야곱이 삼촌에게 속았던 것 중 가장 큰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딸 둘을 미끼로 14년간 부려먹었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할 때 라반이 붙들니다. 아마 이런 일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지요. “쌔을 줄 테니까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논쟁이 벌어지죠. 라반이 쌔을 수도 없이 바꾸고 바꾸었지만 결국은 거부가 된 것은 야곱이었고, 아들들의 눈총이 이전 같지 못하자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집을 떠날 때에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야곱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했으니 가야 되겠다 같이 가자’ 그 때 딸들이 뭐라고 하면서 따라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팔시하는 것 아니냐? 당신 가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따라오는데 사실은 도망치는 겁니다.

라반이 양털 깎느라고 멀리 나가 있는 틈에 도망쳐 버리는 거죠. 사흘 뒤에 라반이 그 소문을 듣고 군사들을 끌고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두 고수의 마지막 대결이 아닌가 싶어요. 서로 속고 속이면서 20년을 지내다가 마지막 대결을 여기서 한 판 하고 끝을 냅니다. 찬찬히 들여다 보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라반이 일주일을 추격해서 따라잡습니다. 내일이면 따라잡을 참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를 참 기쁘게 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야곱이 잘못했더라도 말하지 말란 얘깁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와서 재산을 다 빼앗고 전부 붙들어 데려갈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해요? 다른 얘기가 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가겠다고 말했으면 내가 잔치를 베풀고 환송식을 해서 보내줄 것인데 꼭 내 딸들과 내 손자손녀들을 마치 강도같이 잡아서 끌고 가느냐?”고 짐짓 책망을 합니다마는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으라고 법석을 떨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쁜 말을 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용기를 내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다 털어냅니다. 외삼촌이 자신을 얼마나 박대했으며,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일했는지를 죽 언급하고 난 직후에 서로 헤어집니다.

라반의 말이 참 걸작인 것은, 자기 딸들이 아버지를 평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다’라고 말하는 그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당부합니다.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언약을 맺자.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이 말은 인자한 아버지가 딸을 멀리 시집보내면서 신신당부하는듯 한 말입니다. 라반이 평소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와서 별 도리가 없으니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두 사람이 잔머리를 굴러가면서 속고 속이다가 마지막 판에, 어쩌면 라반이 이겼어야 할 막판이 무승부 비슷하지만 내용상 야곱이 이긴 셈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라반이 기를 쓰고 따라올 때는 ‘내 딸들을 잘 돌봐주라는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만 하고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마지막 대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주신 덕분에 야곱이 이긴 셈이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야곱이 이렇게 잔머리만 굴리고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형이 되어 자기가 유업을 받아 누리겠다고 머리를 굴러가면서 애를 썼는데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은 들었음에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형이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집으로 도망갈 때 벵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인데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리고

반드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후손도 번성하고 땅도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님 손에 죽을까 싶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무척 고민도 하고 힘들어 하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답답해 할 이유가 없었고 또 형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피는 다 부려 놓고도 막판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내게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보내주시겠구나' 하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전에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려고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대 쥐어 박힐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고향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니 너는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안달하고 걱정하니? 그리고 나한테 얘기 안해줘도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며 힘들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동시에 연결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된 곳이 있어요. 왜 야곱의 하나님은 없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볼 때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야곱의 이 말이 라반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부를 때 늘 그렇게 부르니까 라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5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면서 라반의 조상이죠. 야곱이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라반도 뭘 모르고 따라하는 겁니다. 조금 고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 이름이 언제 그렇게 바뀌었느냐고 그러실지 모르죠. 라반의 이 말은 분명히 야곱이 하는 말을 어설프게 따라한 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대충 믿는 사람이고 라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 없지만 야곱이 저렇게 부르니 자기도 대충 꿰맞춰서 부르는 이름이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은 나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라반이 야곱의 표현을 보고 흉내를 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라반과 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어설프게 흉내만 내거나 열심을 내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절에서 삼천배를 했는데도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다니기로 한 그 날부터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다고 합니다. 어찌다가 새벽기도 한 번 나오시는 분과 첫날부터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분 중에 어느 분이 신앙이 좋아요? 어느 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겁니까? 어려워요?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어째서 첫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오셔서 그렇게 잘 나오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분 대답이 "내가 돌부처에게도 목욕재계하고 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돌부처에게도 목욕재계하던 내가 하나님에게 나오는데 뭘 어려운 점이 있겠느냐? 부처 앞에서 열심내던 분이 교회를 나오면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절에서 냈던 열심이 그대로 교회에 옮겨져 왔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빨리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만 내고 있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절에 시주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교회오면 여전히 헌금을 잘 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교회에서 하는 헌금이나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해와 달보고 빌던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전히 와서 잘 빙니다. 그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평소에 보고 빌던 해와 달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내용도,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기도의 흉내만 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 분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분을 알려는 노력없이 그저 열심히 내는 것은 절에 가서 빌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비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어버릴 위험이 높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정성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성이 중요하지요.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정성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정성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하다 못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얻었으니, 얻고 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진 아주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헌금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서 “아깝지 않습니까?” 하고 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 대답이 “점쟁이 만나도 복채 내고, 아니 극장에도 입장료 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그런 분들은 통도 커서 액수도 큼니다. 잘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보다 정성보다 왜 헌금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지 않고 정성만 부지런히 드린다면 라반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핵심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목회자가 미국 목사 중에 49%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걸 안 믿는 목사가 49%라는 겁니다. 일반 성도는 91%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국민일보 한쪽에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91%라는 겁니다. 뭐하러 교회 다녀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고... 라반과 같은 사람이죠. 라반과 같은 사람이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제멋대로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라반이 생겼나 말이에요. 야곱 때문에 생겼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 어설픈 신앙인들 때문에 이 엉터리 같은, 라반 같은 사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 분이 뜻하는 대로 섬기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왜 헌금하는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생각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라반하고 야곱만 득실거리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야곱에게 제일 편한 길이었습시다. 야곱이 그렇게 고생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야곱보다 더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라반이지요. 라반은 나름대로 돈 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야곱에게 이겼던 사람입니다. 야곱을 속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두 부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에게 많이 속고 나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속죠. 자기 자식들을 빼고 나면 잔머리의 대가인 야곱을 속였던 유일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여러 번 속였습니다. 그 때마다 이겼죠. 치우기(옛날 표현으로) 어려운 딸도 치웠죠. 모든 경우에 라반이 이겼지만 마지막 한 번은 졌습니다. 마지막 한 번요! 누구 때문예요? 하나님 때문예요. 그 한번의 짐으로 라반은 결국 야곱에게 완전히 진 셈이죠. 다 빼긴 셈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람사람 라반의 결과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잔머리에서 위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없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피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잔머리의 표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이 비록 잔머리를 많이 굴리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납니다.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에 자기 이름을 올립니다. 더구나 위대한 신앙고백을 나중에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장자가 되고 상속자가 될 것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겁니다. 그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야곱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기막힌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한 번 봅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야곱이 막판에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여기까지는 전과 동일하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가 얼마나 험난하고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기르셨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도대체 인간 될 것 같지 않은 나를, 잔머리나 굴려가며 앓아 있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구나’라는 고백을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하는 겁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정말 험악했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계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걸 진작에 알았다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더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굴린다는 것이 결국은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왜 고향을 떠나서 삼촌집에 갔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만이가 받아야 할 복을 자기가 받겠다고 나섰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복강가에서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야곱에게 **‘네 이름이 야곱이 뭐냐? 비겁하고 약삭빠르고...’**

우리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초잡스러운 그런 이름을 달고 어떻게 살거냐?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아니냐?’ 그렇게 살라고 이름까지 바꾸어 줬는데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형님에게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 준 그 뜻만 알았어도 그 형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끝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형님을 두려워하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편한 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나마 죽기 전에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알아차린 것만 해도 큰 복이죠. 아니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라반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걸 빼앗겨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따르지 못해서 고생만 죽도록 하고 난 다음에 막판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길러 주셨습니까 감격하게 될 겁니다. 진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런 고생 안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평탄하고 행복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